

장애
장애인의
건강을 잇다.
희망을 보다.

장애인의 암예방의 첫걸음

암종별 정보와 검진방법 수록

충북지역암센터와
충북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장애인의 건강하고 주체적인 삶을 응원합니다!





국가 암검진 프로그램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보험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국민은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해 6대암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검진비용은 전액 국가(중앙 및 지방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대상암	검진대상	검진주기	검진방법
 위암	만 40세 이상 남녀	2년	위내시경 검사 또는 위장조영검사
 간암	만 40세 이상 남녀 *간암발생 고위험군	6개월	복부초음파검사 + 혈청알파태아 단백검사
 대장암	만 50세 이상 남녀	1년	분변잠혈반응검사 결과
 유방암	만 30세 이상 여성	매월	유방자가검진
	만 40세 이상 여성	2년	유방촬영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성	2년	자궁경부세포검사
 폐암	55~74세 이하 남녀 30갑년 이상 흡연자	2년	저선량 흉부CT

*간암발생 고위험군 기준 : 간경변증, B형 간염항원 양성, C형 간염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장애친화 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등 국가건강검진을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검진받을 수 있도록 장애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 서비스입니다.

※ 단, 건강검진 보조서비스 신청은 중증 장애인(기존 1~3급)만 이용가능, 복지카드 꼭 지참.

지원대상	장애 유형	지원내용
등록 장애인	지체·뇌병변장애	휠체어 사용자의 동선과 눈높이에 맞는 편의시설
	시각 및 청각장애	안내 시스템 구비 보조인력 (수어통역사 등) 배치
	발달장애	검사받기가 무섭다면 가족(조력인)과 함께 검사 가능 의료진들이 이해하기 쉽게 천천히 설명하며 검사 진행



국가 암검진 절차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홀수년도엔 홀수년도출생자

짝수년도엔 짝수년도출생자입니다

01

암검진 대상자 확인

암검진표에 대상으로 표기된 검사항목

※ 매년 2월 건강검진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송부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검진안내문을 받으신 **해당 연도 12월말까지**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 위암, 간암, 대장암의 2단계 이상 검진은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가능합니다.



02

해당검진기관 확인 및 사전예약

검진안내문 뒷면의 해당검진기관 확인

검진안내를 받지 못하셨거나, 건강검진표가 없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Tel. 1577-1000**)하시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기관포털 (<http://sis.nhis.or.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암검진 대상자 확인 및 건강검진표 출력이 가능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해당 주소지 보건소에서도 건강검진표 출력이 가능합니다.

03

검진기관 방문 건강검진표와 신분증 지참

국가암검진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건강검진표와 신분증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을 지참

04

암검진결과 통보

검진기관에서 15일 이내에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

위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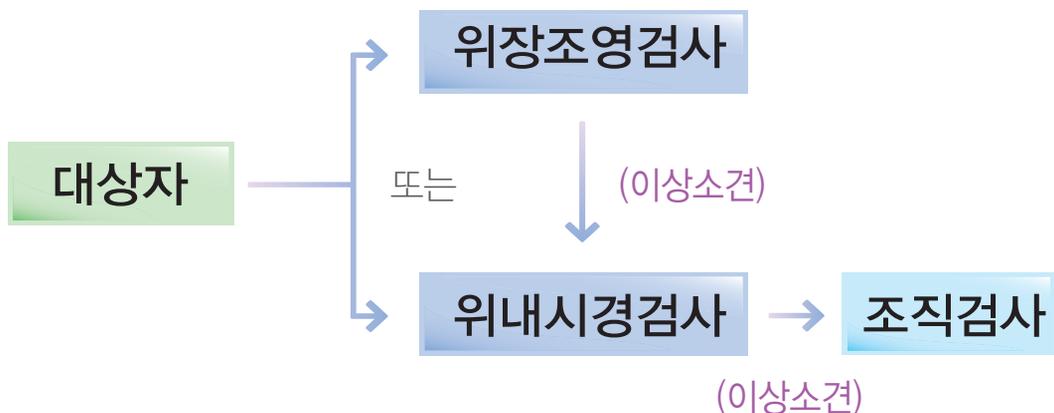
위암의 위험요인 및 관련질환은 무엇인가요?

위암은 생활요인과 환경요인 및 유전요인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여 발생합니다.

- 짠 음식, 탄 음식 ·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
- 흡연 · 과거에 위의 일부 절제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족 중 위암이 있는 경우
- 관련질환 : 만성 위축성 위염, 악성 빈혈

검진절차

위장조영검사와 위내시경검사 중 원하는 한가지 방법을 선택



④ 위내시경검사

내시경을 통하여 위 내부를 직접 관찰하면서 위암의 모양, 크기, 위치를 평가하고, 의심되는 부위에서 조직 검사를 시행합니다.



[위내시경검사]

④ 위장조영검사

조영제를 삼킨 후에 엑스선촬영을 하여 위점막표면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위장조영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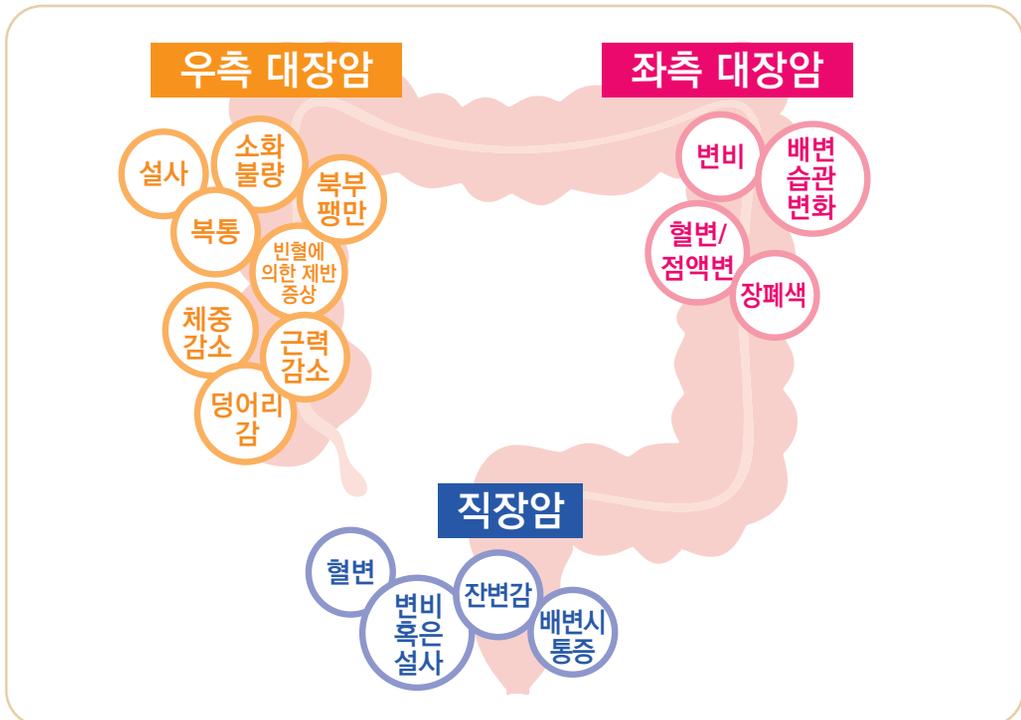


대장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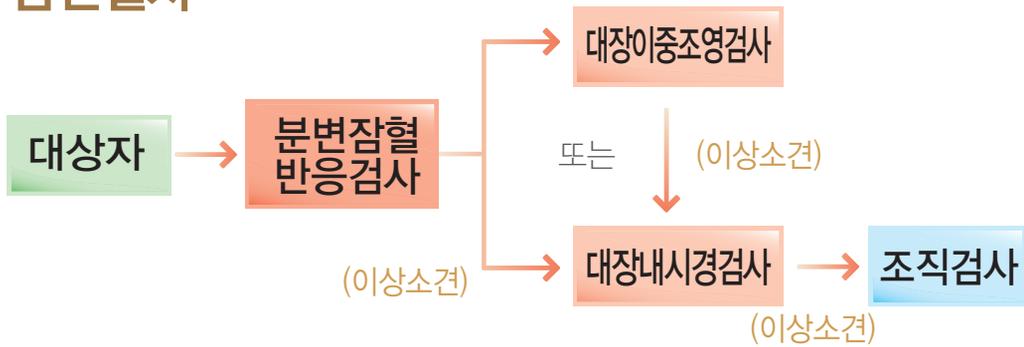
대장암의 위험요인 및 관련질환은 무엇인가요?

대장암은 생활요인과 환경요인 및 유전요인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여 발생합니다.

- 붉은 육류 및 육가공품, 고지방 식사 섭취
- 비만
- 가족 중 대장암이 있는 경우
- 음주, 흡연
- 관련질환
 - 선종성 대장용종
 - 가족성 대장용종증
 - 만성 염증성 대장질환



㉠ 검진절차



㉠ 분변잠혈반응검사

대변에 섞여있는 소량의 혈액을 검출하는 검사 방법으로, 대변 중 헤모글로빈양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정확도는 다소 낮지만 검사 일주일 전부터 아스피린이나 소염제의 복용, 과도한 음주는 피해야 합니다.

㉠ 대장내시경검사

대장 내부를 직접 관찰하고 조직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 전날 대장을 깨끗이 하는 과정과 내시경 삽입 등으로 인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 대장이중조영검사

공기로 대장을 팽창시키면서 조영제를 투여하고 엑스레이 촬영으로 대장 내부를 간접적으로 관찰하여 암의 위치와 크기를 파악하는 검사입니다. 검사 전날 대장을 깨끗이 하는 과정과 조영제와 공기 삽입 등으로 인해 약간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간암

간암의 위험요인은 무엇인가요?

간암은 B형 및 C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과 생활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여 발생합니다.

- B형 및 C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
- 간경변
- 음주, 흡연
- 아플라톡신 : 곡류나 두류의 보관 과정 중에 발생하는 곰팡이에서 생성되는 독소
- 간암 발생 고위험군: B형, C형 간염바이러스 보유자, 간경변증

※ 간암 발생 고위험군으로 진단 받으신 분은 6개월마다 검진을 권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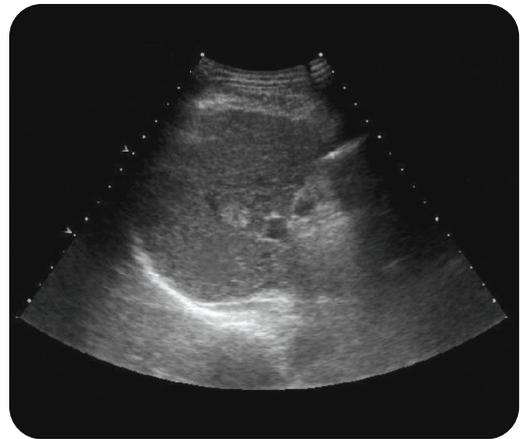
☞ 간암 검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초음파 검사

검사 당일, 금식 외에 다른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체에 무해한 초음파를 간에 투과시킨 후 반사되는 음파를 관찰하여 만든 영상으로 간의 형태, 모양, 크기 등을 관찰하며 간암을 진단합니다.



[복부초음파 검사 시행 장면]



[복부초음파 사진]

●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알파피토프로테인 검사)

- 검사 전 특별한 주의사항은 없습니다.
- 모든 간암에서 상승되는 것은 아니므로 검진 시 초음파 검사를 함께 시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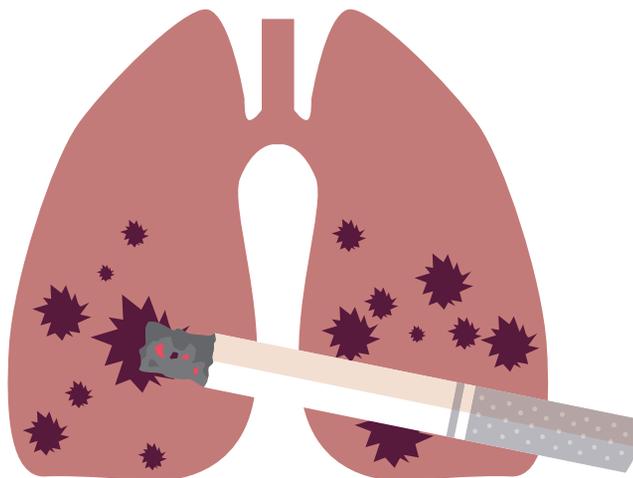
※ 혈청알파태아단백 : 간암 세포에 의해 생산되는 특이한 단백질입니다.

👂 폐암

👂 폐암의 위험요인은 무엇인가요?

폐암의 가장 중요한 발병 요인은 흡연입니다.
여기에는 간접흡연까지 포함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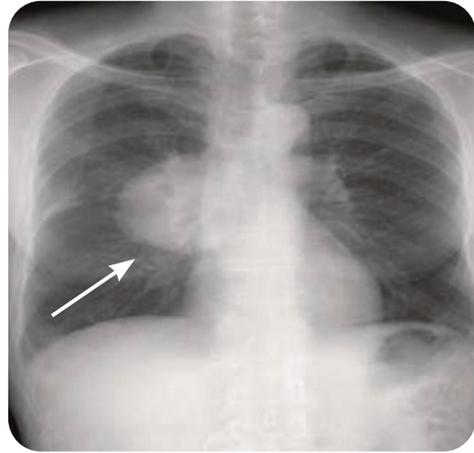
이 같은 생활 요인 외에도 석면, 비소, 크롬 따위 유독성 물질에 장기적 노출(직업적 요인), 우리 주변을 떠도는 벤조피렌을 비롯한 발암물질과 우라늄, 라돈같은 방사성물질의 영향(환경적 요인), 그리고 가족의 병력(유전적 요인) 등 여러요소가 복합적으로 관여하여 발생합니다.



4,800여 종의 화학물질 + 69종의 발암 및 발암의심물질

폐암 진단방법

폐암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보일 때는 흉부 단순 X-선 촬영이나 전산화단층촬영(CT), 객담검사, 기관지내시경검사, 경피적 미세침흡인세포검사(세침생검술) 등을 통해 폐암 여부와 진행 정도를 판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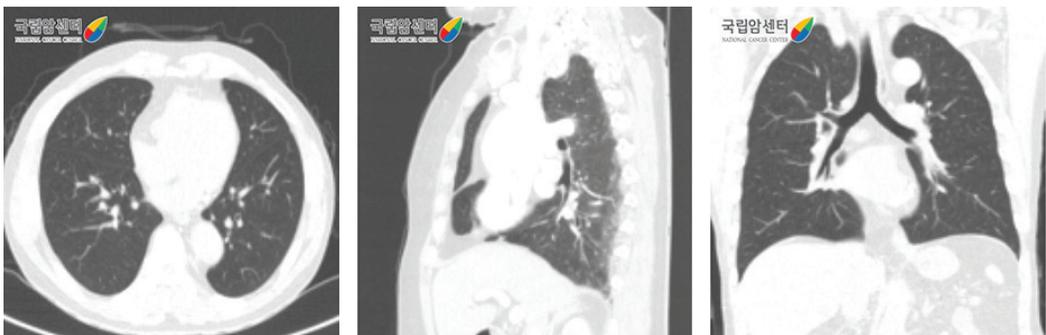


[폐암의 흉부 단순 촬영 소견]

폐암의 진단방법 중 흉부 전산화단층촬영 즉, CT촬영은 어떤 검사인가요?

흉부 전산화단층촬영, 즉 CT 촬영은 X선을 인체의 여러 각도에서 투과시켜 영상을 재구성하는 촬영방법입니다.

겹치는 부분이 없고 작은 조직들과의 밀도차이를 용이하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암의 원발부위 및 림프절 침범 등, 병의 진행 정보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 유방암

} 유방암의 위험요인은 무엇인가요?

유방암은 호르몬 관련 요인과 생활 요인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여 발생합니다.

- 비만, 음주, 가족 중 유방암이 있는 경우
- 호르몬 관련 요인 : 이른 초경, 늦은 폐경, 모유 수유를 하지 않은 경우, 첫 출산 연령이 늦은 경우

} 유방암은 어떤 증상이 있나요?

- 유방에 덩어리, 단단한 멍울이 있거나 피부가 두꺼워짐
- 유방이 붓거나 붉어지거나 열이 남
- 유두가 가렵거나 통증이 있거나 벗겨짐
- 유두나 유두 외의 유방 부위가 부분적으로 안으로 말려 들어감
- 유두에서 모유가 아닌 분비물이 나옴



유방암 조기검진은 왜 받아야 하나요?

- 초기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으며 증상이 생긴 후 병원을 찾게 되면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 종양은 위치, 크기, 조직학적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초기에 발견하면 수술을 하더라도 유방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유방촬영술

유방 엑스레이 촬영을 말합니다. 유방암 진단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검사로, 만져지지 않는 유방암을 발견하는데 가장 좋은 검사입니다. 젊은 여성이나 치밀유방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유방촬영술 시행 장면]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암의 위험요인은 무엇인가요?

자궁경부암은 인유두종바이러스감염을 비롯하여 생활 요인과 환경 요인 및 유전 요인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여 발생합니다.

-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
 - 매우 흔하게 감염되며, 감염되어도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대부분 특별한 치료 없이 낫습니다.
- 흡연
- 가족력

자궁경부암 검진은 왜 받아야 하나요?

- 초기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으며 증상이 생긴 후에 병원을 찾게 되면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 검진을 시행함으로써 암으로 진행되기 전단계인 자궁경부상피이형성증이나 상피내암단계 같은 상태에서 병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고 침윤성암의 경우에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완치율을 높이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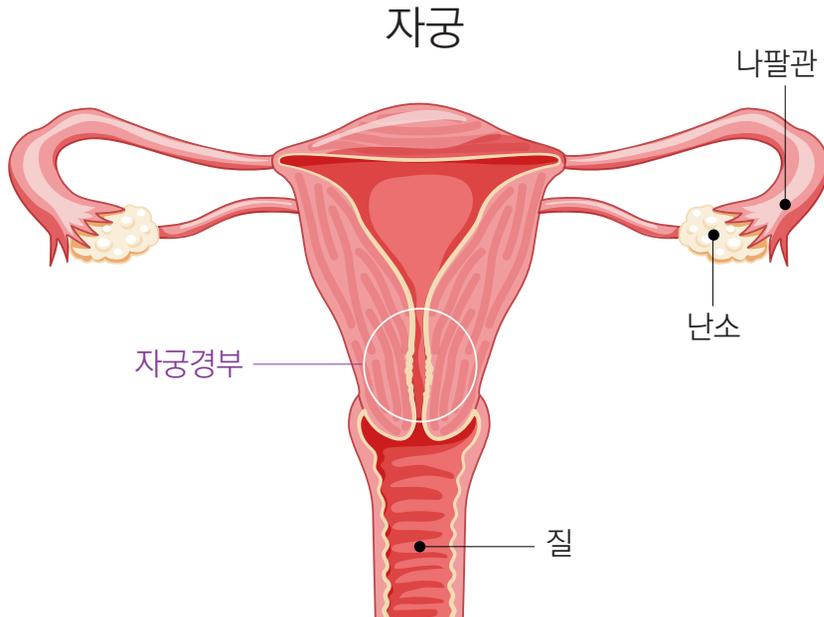
자궁경부암 검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자궁경부세포검사

자궁경부암의 전 단계 병변인 자궁경부상피이형성증을 발견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까지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검사법입니다. 질경을 넣어 자궁경부를 보이게 한 다음, 세포 채취용 솔로 자궁경부 세포를 채취하여 유리 슬라이드에 도말하여 현미경으로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 인유두종바이러스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의 위음성률을 줄이고 민감도를 높이기 위한 보완적 검사입니다. 외래에서 간단하게 질 안의 분비물을 채취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아프지 않고 출혈도 없으나, 일반 검진이 목적일 경우 보험 급여 처리가 되지 않아서 추가 비용이 듭니다.



국민 암예방 수칙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기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을 먹지 않기



암예방을 위하여
하루 한두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걸거나 운동하기

장애인암예방의 첫걸음,

국민 암예방 수칙으로 시작합니다.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 유지하기



예방 접종 지침에 따라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받기



성 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 하기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 보건 수칙 지키기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을 빠짐 없이 받기

충북지역암센터,
충북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함께
우리 모두 암예방해요!



국가암검진 예약 문의
충북대학교병원 건강증진센터 043)269-6566, 6567

장애친화건강검진 문의
충북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043)269-2700

충북대학교병원  충북지역암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 043)269-7710~7716